社內限
2011-25

Trust
Talent
Tenacity
Togetherness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1.07.04 (통권355호)

경제이슈

그리스 재정긴축안 의회 통과

5월 산업활동동향 양호한 성장

경영노트

승자의 저주를 피하는 방법

사회 트렌드

클래식 신인류

저널 브리프

5가지 미래 트렌드

洗心錄

위기는 기회의 시작이다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 그리스 재정긴축안 의회 통과

■ **그리스 의회는 6월 30일 재정긴축안과 국유자산 매각을 위한 법안을 통과**

- **재정긴축안 주요 내용** : 그리스 의회는 향후 5년간 280억 유로의 예산을 절감하고, 공기업 민영화 및 국유자산 매각을 통해 500억 유로를 확보하는 내용의 중기 재정 계획안을 가결
- **5차 구제금융 집행 여부** : 그리스 재정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예정된 120억 유로 규모의 5차 구제금융 지원이 확실시됨
- **그리스 금융시장 일시 안정** : 긴축안의 의회 통과로 그리스 채무불이행 위험이 감소되고, 그리스 신용부도스왑(CDS)금리와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그리스 금융시장은 일시적으로 안정

■ **재정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리스 재정위기 우려는 당분간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긴축안에 대한 그리스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며 실질적인 긴축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 5월 산업활동동향 양호한 성장

■ **5월 산업활동동향은 국내 경기의 양호한 성장세로 생산, 소비, 투자 등 대부분의 지표가 4월에 비해 개선**

- **생산** : 광공업 생산은 대표적인 수출 주력 업종인 반도체의 수요 증가 및 자동차, 기계장비의 조업 정상화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8.3% 증가
- **소비** : 소매판매는 정부의 내수 진작 노력과 고용의 견조한 회복세 지속으로 소비심리가 회복으로 인해 컴퓨터·통신기기,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6.2% 증가
- **투자** : 설비투자는 높은 설비가동률과 기업 수익성 개선으로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호조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10.5% 증가

■ **국내경기는 물가 불안이 여전히 상존하지만 수출부문의 호조가 지속되고 하반기 정부의 내수 부양 정책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 승자의 저주를 피하는 방법[1)]

■ **대형 M&A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승자의 저주' 등 실패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결과는 성공의 경우도 적지 않음**

- 대형 M&A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이유는 대규모 거래일수록 복잡성이 증대되는 동시에 실패할 경우의 후유증이 크기 때문임
- 하지만 지난 10년 간 대형 M&A 사례를 보면 절반은 2년 만에 초과 수익을 창출하였고, 1/3은 업계 평균을 크게 넘는 수익률을 보였음

■ **특히 대형 M&A의 높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각종 여건 상 M&A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 성공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 검토가 필요**

- 더 이상 기업 내부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이 속한 산업이 독과점 체제인 경우에는 M&A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임

■ **맥킨지는 과거의 대형 M&A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한 사업목표, 기업문화, CEO와 관련된 조건을 제시**

<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한 조건 >

	내 용
사업 목표는 클수록 좋다	•대부분은 사업 목표를 인수 이전에 측정한 효과를 바탕으로 설정하지만 이는 실제 M&A를 통한 시너지 효과보다 낮은 경우가 많음 •높은 성과로 평가받는 M&A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인수 이전에 측정한 효과는 사업 목표의 최저 기준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 같은 높은 목표를 바탕으로 관리자에게 엄격한 책임(퇴사 등)과 보상(성과급 등) 기준을 적용하면서 성과 창출을 유도
기업문화의 통합이 필요하다	•M&A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 문화를 통합하기보다는 두 조직이 가진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함 •하지만 대형 M&A에서 성공과 실패 사례의 가장 확연한 차이점은 M&A의 목적 및 기업 전략 부합하는 통합 조직 문화의 수립 여부였음 •이는 피인수 기업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나 결국 통합 조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피인수 기업 문화의 관리에 소홀해지기 때문임
CEO의 개입 분야를 선별하라	•대형 M&A에서 CEO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CEO가 개입하여 결정한 M&A의 사례가 성공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6배 높았음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성공한 M&A에서 CEO가 결정을 내리고 관여한 분야 1, 2개 분야에 불과했음 •대부분은 다른 경영진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CEO는 통합 기업이 단기 실적에 집중할 우려가 큰 경우에 개입

1) 본 자료는 'When Big Acquisitions Pay off(Mckinsey Quarterly, 2011. 5)'를 요약 정리함

□ 클래식 신인류[2)]

■ **제14회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한국인 다섯 명이 수상, 세계가 놀란 일이 벌어짐**

- 지난 6월 30일 밤, 러시아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콘서트홀에서는 러시아어로 발음한 '한국(까레야)'이 다섯 번 울림
- 남자 성악 1위, 여자 성악 1위, 바이올린 3위, 피아노 2위와 3위 등 다섯 명의 '코리안 클래식 키즈(Korean classic kids)'가 수상했는데, 한국은 주최국 러시아를 제치고 최다 수상자를 냄
- 한국은 11명이 출전해서 5명이, 러시아는 47명이 출전해서 4명이, 미국(9)·프랑스(3)·몽골(3)·이스라엘(2) 등에는 모두 합쳐 1명이 수상

■ **세계 무대를 흥분시킨 이들 5인방은 가히 '장영주·한나 키즈'라 할 만한 신인류라 할 수 있음**

- 이번 입상자 세대에게는 서양이 클래식의 본토라는 콤플렉스가 없으며 동경의 대상도 아님
- 정명훈에서 시작해 장영주·장한나에 이르기까지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음악의 중심지를 모두 자신의 무대로 생각하고 있음

■ **이번 코리안 클래식 키즈의 쾌거 뒤에 클래식계의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메세나(Mecenat)를 돌아보는 계기가 됨**

- 입상자 5명 중 4명이 故 박성용 금호아시나아그룹 명예회장이 1998년 처음 도입한 '금호 영재 프로그램' 출신임
- 메세나란 문화예술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은 로마제국의 정치가 마에케나스(Maecenas)에서 유래. 1967년 미국에서 기업예술후원회가 발족하면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
- 이후 각국의 기업들이 메세나협의회를 설립하면서 메세나는 예술·과학·스포츠에 대한 기업의 지원 활동을 일컫게 됐음

2) "정명훈, 장영주, 장한나에 이은 클래식 신인류"(중앙일보, 2011.7.2) 참조

□ 5가지 미래 트렌드[3)]

■ **최근 열린 '세계전략포럼 2011'에서 세계 주요 석학들이 5가지 미래 트렌드를 제시하였음**

① 21세기의 석유는 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이미 세계는 급증하는 인구와 고갈되는 자원으로 인해 에너지와 식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도입하였음
- 여기에 개도국들의 발전에 따른 공업용 용수와 깨끗한 식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자원은 새로운 '블루 골드'가 될 것으로 예상됨

② 스마트폰, 지난 100년 동안 자동차가 했던 역할을 할 것이다

- 휴대전화의 보급률은 세계적으로 75%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자동차가 인류의 물리적 제약을 완화하여 다양한 변화를 촉발한 것처럼, 모바일 기술 또한 PC 내에서 머물렀던 각종 정보와 교류의 제약을 완화하여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

③ 중국은 앞으로 20년간 지금처럼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 중국은 지난 10년간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하지만 이 같은 중국의 성장세는 경쟁국들의 견제, 유가의 지속적 상승, 고령화되는 인구 등으로 인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④ 유럽은 새로운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

- 유럽은 높은 실업률, 정치적 갈등 등의 문제를 덮기 위한 방법으로 무역·인력·자원 등에 대한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음
- 또한 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해지고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국수주의가 나타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래를 발명할 수 있다

- 세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장,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 예측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함
-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 정확도를 높이려하기보다는 미래의 큰 방향성을 읽어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임

3) "미래를 믿지 않는다…미래학 거장의 고백"(이데일리, 2011.6.15) 참조

□ 위기는 기회의 시작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또한 편안함에 익숙하다. 이는 곧 인지상정(人之常情)이기 때문이다.

선인들은 고난과 역경을 발전의 기회로 여겨 왔다. 『논어』의 「위령공편(衛靈公篇)」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는 말이 있다. "잘못하고서도 고치지 않으면,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는 뜻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 지난 일을 질책하기보다는 그 잘못에 대해 바르게 고치고자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맹자는 '생어우환 사어안락(生於憂患 死於安樂)'이라 했다. "우환 속에서 살고 안락 속에서 죽는다"로 풀이된다.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의식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면 생존할 수 있고 편안함에 길들여져 안주하게 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다. 잘못을 경험삼아 노력할 때 성장이 가능하다. 기업이 살아있는 한 많은 걱정거리가 생기게 마련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다면 이는 건강한 기업이다. 현재 실적도 좋고 아무 문제없이 잘 나간다고 편히 있다면 그 기업은 미래가 없는 죽은 기업이다.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지속적으로 각 분야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만 위기 이후에 경쟁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대기업 CEO가 사내 강연에서 한 말이다. "우리는 유래 없는 불황 속에 피눈물 나는 개혁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입니다. 임직원들에게 이 영광을 드립니다." 어려움은 곧 다시 시작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의 말은 옳지 않다. 그러고 보면 맹자의 말은 간단하지만 뜻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은 행동하지 않는 자를 결코 돌보지 않는다."

- 소포클레스(BC 496~ BC 406) : 고대 그리스의 비극 시인